

캠프그리브스 '서틀 투어버스' 재개

경기관광공사 'DMZ 공감여행'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휴서기동안 중단했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캠프그리브스 왕복 셔틀버스를 오는 11월 3일까지 매 주말 다시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방문 3일 전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던 기존과 달리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만 지참해도 캠프그리브스에 출입할 수 있다.

옛 미군기지 건축 양식과 전시 공간에 대한 전시투어와 거리예술공연(사진)도 함께 진행되며, 버스는 평화누리 야외공연장 뒤편에서 신청받아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매주 토, 일 하루 3회(11시, 13시, 16시) 출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투어버스를 이용해 캠프그리브스에 방문할 수도 있으며, '느껴보자 in DMZ 캠프그리브스 공감여행' 투어버스가 매 주말 평화문역에서 7시 30분에 출발한다.

마장호수 출렁다리,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캠프그리브스 전시투어는 물론, 도라산역 통일 플랫폼과 도라산 평화공



원까지 가이드와 함께 관람하는 코스다. 하루 일정 9900원(1인)으로, 소셜커머스 쿠폰, 티켓몬스터 및 테마캠프 모두 두어, 롯데관광 등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캠프그리브스는 미군이 주둔하다 경기도에 반환한 군기지로써, 미군 하사관 숙소를 리모델링해 2013년 말부터 유스호스텔로 운영돼왔다. DMZ(비무장지대)에 근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2016년부터 평화, 예술 문화 공간으로 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거리공연 및 예술체험이 캠프그리브스에서 매 주말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마술, 버스킹 등 상반기에 이어 다채로운 거리 공연이 펼쳐지며 관람객 오감 자극에 나설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주말엔 파주 캠프 그리브스로 문화예술 즐기세요”

도·경기관광공사, 셔틀버스 체계
11월 3일까지 매 주말 운행

1일 9900원 관람 코스 등 다양
전시투어·거리예술공연도 진행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반원 미
군기지인 파주 ‘캠프 그리브스’가 주말
마다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뀌고 셔틀버
스도 운영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7~8월 중단
했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캠프 그리브
스 구간 용복 셔틀버스를 11월 3일까지
매 주말 다시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도 캠프 그리브스에 출

입할 수 있다.
옛 미군기지 건축 양식과 전시 공간에
대한 전시투어와 거리예술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셔틀버스는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 뒤
편에서 신청받아 DMZ생태관광지원센
터에서 매주 토·일요일 하루 3회(오전
11시, 오후 1시·4시) 운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 캠프그리
브스에 방문할 수도 있다.

매 주말 평화문역에서 7시 30분에 출발
하는 ‘느껴보자 in DMZ 캠프그리브스
공공여행’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장호수 출렁다리, 임진각 평화누리공
원, 캠프 그리브스 전시투어 뿐만 아니라
도라산역 통일 플랫폼과 도라산 평화공원
까지 가이드와 함께 관람하는 코스다.

하루 일정 9만9000원(1인당)으로 소별키

마스 무방, 티켓몬스터 및 테마캠프, 모두
투어, 롯데관광 등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2004년 미군이
주둔하다 경기도에 반환된 군기지로 민
통선 안쪽인 태대비무장지대(DMZ)와도
2km 떨어져 있어 분단 현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미군 하사관 숙
소를 리모델링해 2013년 말부터 유스호
스텔로 운영중이며 2016년부터는 평화,
예술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미술, 버스킹 등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할 다채로운 거리공연과 예
술행이 캠프 그리브스에서 매 주말 오
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다만, 이번 추석 연휴와 평화마라톤이
진행되는 10월 6일에는 주말공연과 셔

틀·투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
스텔031-953-0387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 4~6월
약 1천500명의 관광객이 셔틀과 투어버
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경험했다. 하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역사
의 현장에서 문화와 예술을 만끽하길 바
란다”고 전했다. /연경환기자 ino@

인천일보

셔틀버스 타고 캠프 그리브스로 오세요

주말 문화예술 공간 활짝

주말마다 민간인 통제구역의 ‘캠프
그리브스’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뀌
며 셔틀버스를 운영, 개방의 문을 활짝
연다.

경기관광공사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캠프그리브스를 오가는 셔
틀버스를 오는 11월 3일까지 주말마다
다시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버스는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 뒤편
에서 신청받아 DMZ생태관광지원센
터에서 매주 토·일 하루 3회 출발한다.
옛 미군기지 건축 양식과 전시 공간에
대한 전시 투어와 거리예술공연도 함
께 진행된다.

특히 방문 3일 전 별도의 절차가 필
요했던 기존과 달리 신분증만 지참
해도 캠프그리브스에 출입 할 수 있
다.

캠프그리브스는 미군이 주둔하다
경기도에 반환한 군기지로써, 미군 부
사관 숙소를 리모델링해 2013년 말부
터 유스호스텔로 운영돼왔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 4월
부터 6월까지 약 1500명의 관광객이
셔틀과 투어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경험했다”며 “하반기
에도 많은 분이 역사의 현장에서 문화
와 예술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
다.

/최남훈 기자 baikal@incheonilbo.com